농업 가치 알리는 '기회의 장'

전주농협 농민훈장 수여식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도

전주농협이 14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농민훈장 수여식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14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농민훈장 수여식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성주·양경숙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시·도의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지역 관내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외빈과 전주농협 농민조합원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주농협 창립 50주년을진심으로 축하하며,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영광스런 100주년을 맞으시길 기원한다"는 축전을 보내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농민들의 상을 만들어주신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과 임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농민훈장을 수상한 농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민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미래의 전북 농업에 전주농협과 농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32명의 농민이 전국 최초로 농민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농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주농협 50년사 특별사진전'이 열렸고, 동영상과 포토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전주농협의 지난 발자취를 둘러볼 수 있었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기념사에서 "애국자 농민을 위한 농협, 농민이 대우받는 농협이 바로 전주농협이 지향하는 목표"라면서 "지난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우리 농민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주농협 여성농악단의 풍물공연과 비전퍼포먼스 등 다양한 세부행사가 진행되었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내외빈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전북도 광역브랜드 '예담채' 6년 연속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14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2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예담채'는 도내 13개 시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2014년~2016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2015년~2017년) 수상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도 6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2008년 원예농산물 브랜드 출시 이후 3년간 농가맞춤형으로 조직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라북도 최고급 쌀 십리향 米(향미)까지 품목을 확대 출하하고 있으며 예담채 브랜드로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급 쌀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전북농협은 전북 농산물 '예담채'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월 수도권 및 영·호남 하나로마트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중·소형마트(빅마켓, 메가마트, 서원유통 등) 등에서 통합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명 박람회 등에 참가해 소비자는 물론 유통 바이어들에게까지 전북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도 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해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는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14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2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개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폐업 소상공
약 5만개 업체 100만원씩… 내달 26일까지 신청해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재기교육 이수로 간주한다.

다만,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재기교육은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은 장려금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이 원칙이며,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도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경진원, 참여 사업장 최대 64개사 모집… 22일까지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22일까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청년혁신가를 매칭해 사회적경제 사업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최대 64개사(전주 25, 군산 9, 익산 2, 정읍 1, 남원 5, 김제 7, 완주 2, 무주 2, 장수 2, 임실 2, 순창 3, 고창 4)이며, 이번 달 22일까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사업장은 1차 회계심사, 2차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210만원/자부담 10% 이상)를 최대 2년 간 지원받게 된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처는 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이다.

/김윤상기자

14일 열린 LX 경영혁신 TF 킥오프 회의.

경영혁신 TF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

LX, 킥 오프 회의 시작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경영혁신 TF' 체제로 고강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LX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자 'LX 경영혁신 TF'를 발족, 부적절한 관행·절차 등을 선제 발굴하고 조기 개선해 자체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X 경영혁신 TF'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동조합, 지역본부 및 일선지사까지 참여하며 14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경영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상생 협력 강화를 중점 검토한다.

이를 위해 경영 및 주요사업 전반을 재진단하고, △조직운영 및 프로세스 개선 △성과·능력중심 인사제도 개편 △자산 유동화 및 재무관리 강화 △절차 투명성 강화·부당행위 근절 △데이터 개방·민간 협업 모델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둔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공사 본연의 업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과제를 재점검하겠다"면서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위기를 기회로"… 전은, 3분기 경영전략회의

하반기 경영 전략 공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3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3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한국 은행장은 임원 및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영·영업성과 및 하반기 경영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며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반기 경제 전망이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악조건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강화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전략 추진과 지속성장 기반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리 상승기 및 코로나 펜데믹 출구전략, 가계 대출규제 상황 등에 대해 전북은행만의 영업 전략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을 초빙해 세대 간 소통에 대해 알아보는 특강도 진행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상반기 열심히 영업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객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통해 전북은행만의 가치와 이상을 추구해 나가자"면서 "남아 있는 분기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3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3분기 경영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서한국 은행장이 하반기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LH, 정읍첨단과학산단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

내달 24일 1순위 추첨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A2-1블럭)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A2-1블럭)는 분양용지(전용 60~85㎡)로 대지면적 5만460㎡에 총 960세대, 최고 15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147억900만원(29만2,000원/㎡), 3년 분할납부(무이자)조건으로, 오는 8월 24일(1순위) LH청약센터를 통해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행정처분사실이 없는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용지는 첨단 과학 신도시 건설과 지식기반 산업지역 벨트화의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90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우수한 투자환경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현재 산업용지 분양률이 76%에 달하고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과 33개의 기업이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어 지방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부(063-230-6104, 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